

파시즘 맞서는 여성 목소리·예술 실천 조명



5·18 열매 × 연대예술인작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부터 2026 오월미술제 '등장 When Bodies Appear'

회화·아카이브·퍼포먼스·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5·18 성폭력 피해 증언, 동시대 여성적 운동 다뤄

2026 오월미술제가 '등장 When Bodies Appear'를 주제로 광주에서 열린다.

(사)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광주민족미술협회)는 5·18민중항쟁 46주년을 기념하며 7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일대에서 2026 오월미술제를 펼쳐 보인다.

올해 미술제는 '파시즘에 대항하는 여성'을 주제로, 오월미술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서 파시즘은 특정 체제를 지칭하기보다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는 배제와 혐오, 폭력의 질서를 의미한다.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오늘의 민주주의 문제와 연결하며, 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실천을 예술로 다루는 자리다.

이번 미술제는 여성적 운동을 고정된 성별 정

체성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형성된 연대와 돌봄, 상호의존과 공존의 감각을 중심으로, 혐오와 폭력의 질서에 맞서는 삶의 방식이자 미시적 윤리로 제시한다.

전시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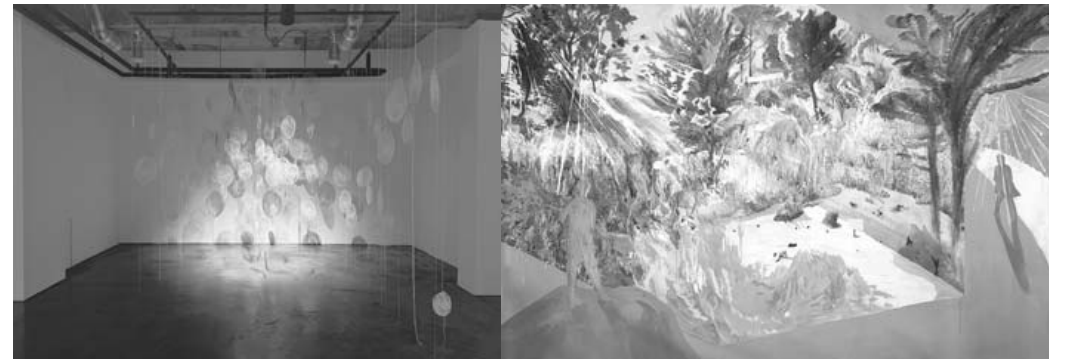
제1전시관 '발화'는 전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에서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제주 4·3, 대구 10월 항쟁, 데이트 폭력과 온라인 성착취 등 과거와 현재의 젠더폭력을 함께 다룬다. 피해자 단체 '5·18 열매'와 예술가가 협업한 '열매 예술프로젝트'가 소개된다.

주요 작품으로는 피해 장소의 기억을 식물과 오브제로 시각화한 김미련의 '풍경의 좌표_광주', 공동체적 몸짓으로 확장한 방정아의 '우리들의 강강술래', 구술 기록을 낭독으로 연결한

김현주×조광희의 '세 개의 시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흑표범의 영상 '안채와 밖채', 김희련의 시민참여 작업 '우리 지금 만나고 있어요' 등 총 23명 작가와 5·18 열매의 아카이브가 전시된다.

제2전시관 '회절'은 무등갤러리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중심 서사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적 운동과 관계의 윤리를 다룬다. 전해옥은 폭관화 부적 시리즈를 선보이며 일부 신작은 QR코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는 인터랙티브 작품과 영상으로 참여하며 박철우·이광·이윤영·최재덕 등의 작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와 돌봄의 감각을 드러낸다.

미술제는 전시장 밖으로도 확장된다. 16일 오후 2시 금남로에서는 라이브 퍼포먼스 'Pulse: Now'가 열려 작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



▲박소연작 '이름에게'

▲전진경작 '언니들을 위하여'

▼방정아작 '우리들의 강강술래'

가 마련된다. 15일 오후 2시에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학술포럼 '등장의 미학: 발화하고 회절하는 여성과 예술'이 개최된다.

또한 디지털현대전시관 'Pulse: We'는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대 전시 참여를 받는다.

총감독을 맡은 김신윤주 예술감독은 "오월미술제가 처음으로 여성을 전면 주제로 다루는 자리"라며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 침묵을 깨고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함을 받아들이는 시선과 상호의존, 차이를 유지한 공존이야말로 파시즘에 맞서는



미시윤리"라며 "돌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예술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명진 기자

기록 속 의병 정신...고흥의 뿌리 다시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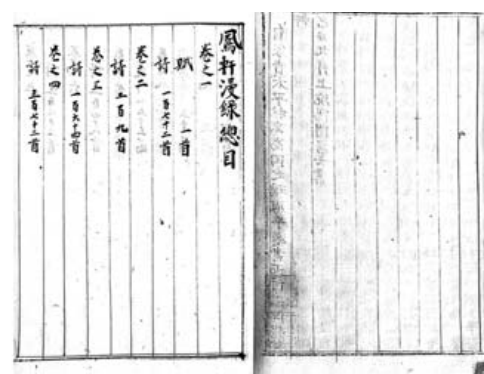
한국학호남진흥원,

전남 고문서 국역 사업 본격화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이 전남도와 함께 고문서 국역 사업을 통해 지역 역사 자료를 발굴·활용하는 작업에 나선다.

올해 진흥원은 고흥 의병 정신의 사상적 뿌리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 문집 번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창모의 문집 '봉헌만록(사진)'과 신석구의 '화포유고'를 대상으로 원문 입력



과 번역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흥 지역 항일 의병 투쟁의 사상적 기반을 정

리하고 의미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고흥은 '의향'으로 불리며 항일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신창모는 지역 출신 지식인으로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그의 정신은 자녀들에게 이어졌다. 둘째 아들 신석구는 문집을 남겼고, 넷째 아들 신성구는 의병장으로 활동하며 항일 투쟁에 나섰다.

이번 국역 사업은 신창모가 추구한 삶의 가치가 후대로 이어져 학문과 실천으로 확장된 흐름을 살피는 데 의미가 있다.

홍영기 원장은 "지역에 남아있는 민간 기록 유산을 현대어로 풀어 공유함으로써 지역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문헌 번역과 고증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2025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전시·교육 전반 성과 인정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이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의 고객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올해는 공기업과 준정

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전국 1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립광주과학관은 상설전시 운영, 특별기획전, 교육프로그램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목표 점수를 넘어서며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인정받았다.

기관 13주년을 맞은 과학관은 '창의적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삼고 전시와 교육 전

반에서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매년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서비스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등 서비스 품질 관리에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 10002)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해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고객 응대 절차를 체계화했다. 또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사이언스 브릿지'와 학생 홍보소통단 '루체스타'를 운영하며 이용자의 의견과 개선 요구를 수렴해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작가에 문창환·임용현

5-9월 현지 체류하며 창작·교류 진행

광주시립미술관이 지역 미술인의 해외 교류와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6 국제 레지던시 국제교류기관 파견 작가 공모' 선발을 마무리했다.

공모를 통해 해외 교류기관에 파견될 작가는 총 2명이다. 대만 타이난 샤오롱 컬처파크(Soulangh Cultural Park)에는 문창환 작가가, 독일 뮌헨시 문화부 빌라 발트베르타(Villa Waldbertha)에는 임용현 작가가 각각 선정됐다. 두 작가 모두 뉴미디어 기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선정된 작가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현지 레지던시에 참여한다. 대만 파견은 5-6월 2개월, 독일 파견은 7-9월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작가들은 현지에 체류하며 창작과 교류 활동을 펼치고, 양쪽 항공료 심비와 창작지원비를 지원받는다. 또 현지에서 제공되는 개별 스튜디오에 머물며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작품발표회와 연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문창환은 주거·환경·에너지 등 사회 시스템이 만든 보이지 않는 구조를 리서치하고, 그 이면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뉴미디어 기반 설치·영상 작업으로 시각화해왔다. 최근에는 화력발전소 인근 생태계와 어촌 공동체를 중심



문창환

임용현

으로 산업 유산이 남긴 흔적과 환경적 기억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파견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기 설방공장으로 사용됐던 샤오롱 컬처파크의 장소성에 주목해 설방 산업이 촉발한 노동 이동과 장소의 변형을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작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임용현은 시스템과 기술 문명이 초래한 사회적 이면을 탐구하며, 3D 프로젝션 맵핑과 인터랙티브 영상 등을 활용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보 과잉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 '초미디어'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왜곡·감시·중독 같은 동시대 문제를 풍자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독일 체류 기간에는 뮌헨의 건축·사회적 맥락을 조사해 미디어 기술이 도시의 기억과 결합하는 방식을 탐색하고, 이를 시각적 서사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FM 98.1 MHz

CBS 표준FM

CBS RAINBOW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YouTube